

예비 피아니스트의 길을 지켜봐 준 따뜻한 시선

전남예술고 강한빛 학생,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에 장학금 감사 편지

“한 사람이 자라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개인의 노력만이 아닌, 그 길을 지켜봐 주는 따뜻한 시선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일 피아니스트의 길을 걷고 있는 영암 서호면의 한 고등학생이,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에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지역사회가 건넨 장학금이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자신의 여정에 '따뜻한 시선'이 됐다는 이야기를 차분하게 전하는 내용이였다.

편지를 보낸 주인공은 전남예술고 피아노과 2학년 강한빛 학생.

4살 때부터 엄마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몇 해 동안 피아노를 치던 이 학생은, 손뭉을 다쳐 배움을 중단했다.

영암 남중중학교 3학년에 다시 연주를 시작한 그는 이듬해 피아니스트를 꿈꾸며 예고에 진학했다. 올해 2월부터는 예체능 특기생상을 지원하는 영암군미래교육재단의 '영암스타 50인'에 선정, 장학금을 받기 시작했다.

예술가의 길을 걷는 학생답게, 강 학생은 편지에서 불안한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담담하게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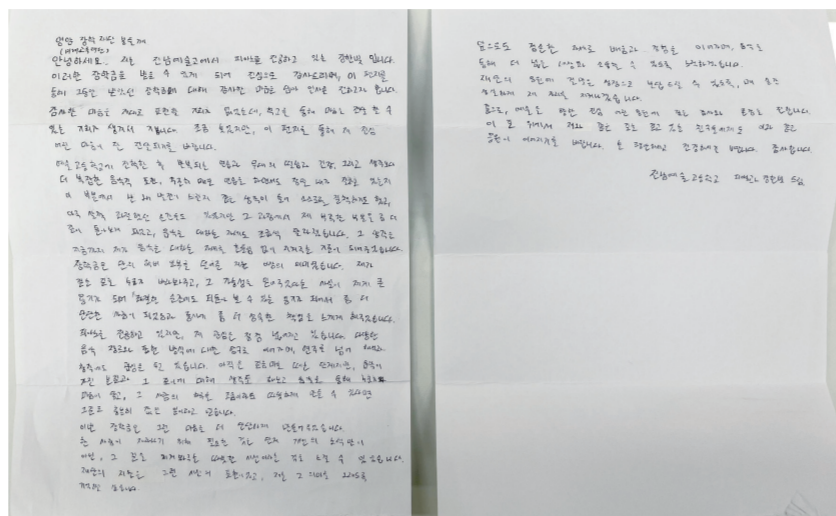
반복되는 연습에도 무대의 떨림과 긴장은 늘 반복됐고, 음악의 세계는 깊이 들어갈수록 어려워져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난 왜 발전이 느린지”란 생각에 좌절했던 순간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런 말 못할 고민에 용기를 줬던 것이 바로 영암 지역사회의 응원이었다고.

강 학생은 “장학금은 단지 학비 일부를 덜어준 지원 이상의 의미였”이라며 “제가 걷는 길을 누군가 바라봐주고, 그 가능성을 믿어 주었다는 사실이 제게 큰 용기가 됐고, “좀 더 성숙한 책임을 느끼게 해줬다”고 전했다.

나아가 “음악을 통해 누군가와 마음이 닿고, 그 사람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값진 일이라고 믿”는다는 말로 지역사회를 든든하게 했다.

덧붙여 그는 겸손한 자세로 배움과



경험을 이어가며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응원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말로 편지를 마무리했다.

여름방학 중인 강 학생은 목표를 오가며 피아니스트로서 자신의 연주를 매일 가다듬고 있다.

작곡도 배우고 있는 요즘은 전문 연주자로 계속 나아갈지, 작곡가로 새로운 길을 개척할지가 고민이다.

그 길의 방향과 종착지가 어디든, 자신의 길을 부단히 개척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동시에 주위를 살피며 고마움을 전할 줄 아는 공감의 마음 하나만으로도 강 학생의 오늘과 내일은 밝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주광역시광산구새마을회

농촌일손돕기 및 집중호우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

(사)광주광역시광산구새마을회(회장 안덕홍)는 지난 8일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중호우 피해 발생으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준령 명예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한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이번 집중호우로 농가들의 피해가 커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수해 복구인력 지원 등을 통해 하루빨리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지도자광산구협의회(회장 유희권)·광주광역시광산구새마을부녀회(회장 백영실)는 환경정화 활동 외에도 탄소중립 em버누 나누기, 음식봉사, 방역봉사, “장바구니 사용으로 탄소중립 실천해요”, 사랑 나눔 돌봄 잔치 운영 사업, 친환경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김장 나누기 등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오덕근 기자

함평군, 제80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이상의 군수 “독립유공자 헌신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전남 함평군이 광복 제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을 찾아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함평군은 12일 “이상의 함평군수가 독립유공자 고(故) 정재남, 고(故) 이윤희 선생의 유족 가정을 방문해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에 대한 예우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함평군은 매년 광복절 전후로 유족을

찾아 격려를 전하고 생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이 군수는 유공자 가족을 위로하고 유족의 생활 여건과 건강 상태를 살피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한 유공자 가족은 “오늘 찾아와 주신 덕분에 유공자 가족으로서 다시 한번 자긍심을 느낀다”며 “선조의 나라 사랑 정신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 덕분”이라며 “후손으로서 앞으로



도 보훈 가족 예우와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이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전광훈 기자



고흥군 풍양면, 구례군과 고향사랑으로 마음을 잇다

고흥군 풍양면-구례군 안전교통과 산림과 따뜻한 기부 동참 물결

고흥군 풍양면(면장 임수영)은 지난 8일 구례군 안전교통과 및 산림과와 함께 지역 간 상생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지역 교류의 모범을 보였다.

이번 교차 기부는 양 기관이 각각 110만 원씩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것으로,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 결과다.

임수영 풍양면장은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간 상생과 신

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시작이라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서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교류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상호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고흥군과 구례군 간 다양한 교류와 협력사업으로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박도일 기자

영광군, 제80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11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 유족 6명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영광군수(장세일 군수)는 광복회 영광연합지회(회장 김경주)를 직접 방문해 유족들을 만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독립유공자의 고귀한

정신은 우리 국민 모두가 반드시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정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독립유공자를 예우하는 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은 보훈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3·1절과 광복절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위문을 실시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에게 유족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의 위훈을 기리고 후세에 계승하기 위해 다양한 보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광/이현식 기자

2025 장성 방문의 해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림
축령산 편백숲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

